

# 12초019 차 우승... 'F1 황제' 페텔 따라올 자 없다

## F1 코리아 그랑프리

### 첫 바퀴서 해밀턴 추월 '독주' 올 16개 대회서 10번째 우승

역시 페텔이었다.

제바스티안 페텔(24·독일·레드불)이 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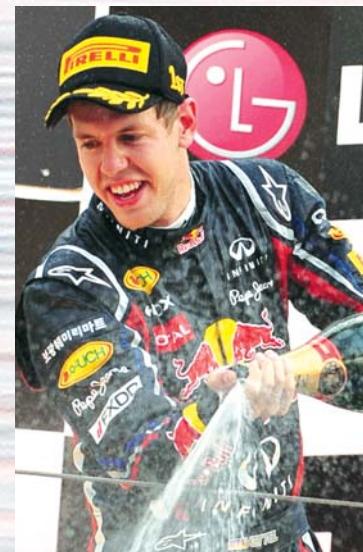
페텔은 1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F1 2011 시즌 16라운드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5.615km의 서킷 55바퀴(308.630km)를 1시간28분01초994에 달려 2위 루이스 해밀턴(27·영국·맥라렌·1시간38분14초013)을 무려 12초019 앞서며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지난 9일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시즌 15라운드에서 3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십 포인트 324점으로 이미 2011시즌 월드 챔피언을 확정 지은 페텔은 승점 25점을 추가했다.

올해 16개 대회에 나와 10번째 우승을 차지한 페텔은 이로써 지난 2004년 미하يل 슈마허(43·독일·梅르세데스)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승(13승) 기록에도 접근했다. 또 2007년 데뷔 이후 개인 통산 20번째 우승을 영암에서 달성 했다.

전날 예선에서 1분36초042의 기록으로 아쉽게 해밀턴에게 팔로지션을 내줬던 페텔은 첫 바퀴를 채 돌기도 전에 해밀턴을 추월, 선두로 치고 나갔다.



페텔은 14번째 바퀴까지 4초 이상 차이를 내며 앞서갔고, 해밀턴이 15번째 바퀴를 돌다 퍼트 스텁을 들어 가면서는 9초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17번째 바퀴에서 슈마허가 비탈리 페트로프(러시아·르노)와 충돌하면서 세이프티 카 상황이 발생했다. 세이프티 카 상황에서 해

밀턴이 격차를 1초 안팎으로 크게 좁히면서 다시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연출되는 듯 했다. 하지만 페텔은 끝까지 독주체재를 이어가며 해밀턴에 12초 이상 앞서며 체크기를 받았다.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풀 포지션에서 출발한 해밀턴이 마크 웨버(36·호주·레드불)의 주격을 받기 시작했다. 두 선수는 경주 막판까지 추월에 추월을 거듭하면서 경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해밀턴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3위를 차지한 웨버(1시간38분14초471)에 불과 0.458 앞선 기록이었다. 지난해 영암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페리아의 페르난도 알론소는 6번 그리드를 출발, 1시간38분17초683의 기록으로 5위로 경기를 끝마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F1 2011 시즌 17라운드는 오는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영암=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

### 페텔 우승 인터뷰

F1의 '새로운 황제' 제바스티안 페텔(24·독일·레드불)이 F1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경기 초반부터 독주체재를 이어나갔던 페텔은 "지난해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더욱 우승하고 싶었다"며 "오늘처럼 경기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분이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대회에서 기권해야 했던 페텔은 "지난주에 드라이버 부문에서 챔피언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레드불이 컨스트럭터(팀) 부문 우승을 확정지어 기쁘다"며 "나를 위해 또 팀을 위해 일해 준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이다"고 말했다.

페텔은 이번 대회기간 연습주행

과 예선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예선전 때가 되어서야 경기감각과 컨디션을 되찾았다. 오늘 매우 좋은 레이스를 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바퀴에서 어떻게 해밀턴을 추월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출발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큰 역풍의 도움으로 해밀턴의 차를 추

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초반 독주를 이어가던 페텔은 세이프티 카의 등장으로 경기가 지연되면서 순식간에 해밀턴과의 거리가 다시 좁혀졌다.

페텔은 "해밀턴과 거리가 좁혀지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상황에서 나는 타이어로 인해 고군분투해야 했었다"며 "머신과 엔진이나 틀의 도움으로 두 번째 퍼스트탑에서 해밀턴과의 거리를 다시 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10은 굉장한 숫자다"고 시즌 10승의 소감을 밝혔다.

영암=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질주 본능

1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결승에서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질주하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미감재) 57만원 ⇒ 45만원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미감재 61만원 ⇒ 49만원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미감재 65만원 ⇒ 53만원
- 트립형 매입차량은 상담후결정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 투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파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아이나비 클레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퍼 별도 2만원

▶ 1채널=전방카메라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

